

2017년 하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캄보디아 프놈펜 출장자료

【 목 차 】

I. 캄보디아 체류 정보	01
II. 캄보디아 개황	06
III. 캄보디아 경제 현황	09
IV. 시장 특성과 바이어 특징	25
V. 프놈펜 관광 안내	28
※ 현지 주요 연락처	30
※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31



I. 캄보디아 체류정보

1. 입출국 정보

□ 입국 비자 발급안내

- 일반여권은 비자 필요, 관용·외교관용 여권은 60일간 비자 면제
- 1개월 관광비자(\$30) 또는 1개월 상용(비즈니스)비자(\$35) 도착 시 공항에서 발급 가능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증명사진 1매 필요)
 - 항공 도착 후 에스컬레이터 따라 1층으로 내려오면 좌측에 Visa Application 안내 데스크 있음. 비자신청서, 여권 및 비용 제출하면 비자 발급 후 여권에 비자 부착하여 주며, 호명시 여권 수령. 이후 Immigration으로 이동
 - 관광/상용 비자는 모두 유효기간이 30일이나, 비즈니스 목적이란도 한달 이내 출국 예정이라면 관광비자 발급해도 무방. 단, 관광비자는 현지 연장이 불가하고, 사업 목적 등 장기 체류시에는 1개월 상용비자(\$35) 발급 권장하며, 상용비자의 경우에만 현지에서 연장 가능
- 입국시 준비서류 안내(기내에서 하단 3종 수령 가능)

출·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비자신청서

- 한국에서 비자를 받은 경우 : 출입국신고서·세관신고서 2종 작성
- 한국에서 비자를 안 받은 경우 : 비자신청서까지 3종 모두 작성

□ 통관

- 통관심사는 엄격하지 않으나, 세관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작위로 실시 (X레이 검사)되며, 의약품·기계·방송장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



2. 체류 정보

□ 현지 기후 및 복장

- 열대몬순기후로 연평균 최저 25도~최고 35도로 무더우며,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됨
 - 건기(11월~3월) : 비교적 건조하고 최저 23도~32도 정도로 방문하기 좋은 날씨이나, 비는 거의 오지 않음. 1월이 가장 시원함.
 - 우기(4월~10월) : 오후중 스콜성 소나기가 거의 매일 내리면서 무더위를 식혀주며 1시간 이내에 개임.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4월에는 최고기온이 39도에 이름.
- 하복을 주로 착용하나,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긴팔을 입는 경우도 많음. 공식 행사 외에 넥타이는 거의 착용되지 않음.

□ 통화(USD) 및 결제수단

- 캄보디아 전역에서 미달러화가 통용되며, 현지화(Riel)는 1달러 이하 거스름돈으로 주로 쓰임. 원화(W)는 통용되지 않으며, 현지화로의 환전도 쉽지 않음.
 - USD1≒KHR4,000(리엘)이며 통상 100리엘, 500리엘, 1,000리엘 등의 지폐 사용됨.
 - 달러화는 한국에서 미리 환전하여 오는 것이 권장되며, 구권 100달러짜리나 모서리 등이 조금이라도 찢어진 경우 상점에서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함.

< 캄보디아 현지화(리엘) 지폐 >



- 호텔, 일부 고급식당 및 대형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이 거의 안되고, 소규모 결제를 꺼리고 일부에서는 2~5% 내외의 카드 사용료가 추가함.



□ 항공편 운항 및 국제 버스 운행

- 프놈펜에는 日 왕복2편, 주 총14편의 인천발 직항편 운항중('17.5월 기준)
 - ✈ 대한항공 KE689 인천(18:45) 출발 프놈펜(22:10) 도착
 - ✈ 대한항공 KE690 프놈펜(23:20) 출발 인천(06:30+1) 도착
 - ✈ 아시아나 OZ739 인천(19:30) 출발 프놈펜(23:20) 도착
 - ✈ 아시아나 OZ740 프놈펜(00:20) 출발 인천(07:20+1) 도착
-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베트남·태국·일본·홍콩·대만·말레이시아 등을 통한 경유편 입출국이 가능함
 - 방콕(일 18편), 싱가포르(일 6~8편), 호치민(일 15편), 쿠알라룸푸르(일 6편), 라오스 비엔티안(일 3~4편), 타이페이(일 3편) 이외에 베이징, 상하이, 하노이, 광저우, 타이페이 등에 직항편이 운항중
- 프놈펜 ⇄ 베트남 호치민 왕복 버스편이 다수 운행중
 - 한국 금호고속 투자법인(Kumho Samco Busline)이 일 7회 운행중

□ 교통수단

- 택시
 - 공항 택시의 경우 프놈펜 시내 주요 호텔까지 주간 12\$ 정액요금(후불)으로
 - 우버(Uber) 택시 이용할 경우, 프놈펜 시내 주요 호텔까지는 약 7.5\$ 소요
 - * 프놈펜 공항 입국장 정면에 택시안내부스가 있음
 - ** Uber : 스마트폰 어플, 개인운영 택시 서비스
 - 미터 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1\$, 주행 330m당 0.25\$ 추가
 - * 한국인 운영 택시기업 Choice Taxi 전화번호 023-923-923
- 툽툽/모토
 - 툽툽(오토바이택시) : 시내 이동 시 2~5\$ (탑승 전 가격협상 요망)
 - 모토(오토바이) : 시내 이동 시 1~2\$ 내외 (저렴하나 안전도 낮음)

□ 종교 등

- 캄보디아 국교는 헌법상 불교이며 인구의 약 95%가 소승불교 신봉
 -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원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신앙, 교육 및 사회활동 장소로서의 역할 수행
- 캄보디아인들은 동남아시아 최대 왕국이었던 크메르인의 후손임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부 민족감정도 있음.



□ 전기 및 통신수단

○ 전압 : 220V / 50Hz

－ 콘센트 규격이 정해지지 않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모양이 많음.



○ 한국으로의 전화요금은 분당 1\$ 정도이나 호텔은 더 비싼 편임.

* 단, 현지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경우 훨씬 저렴하게 이용가능

(예) CellCard 핸드폰의 경우, 177 + 82 + 한국 전화번호 (0.15\$/분)

○ 핸드폰은 SIM카드 이용 전화방식으로 최저 1~2\$ 정도면 번호 발급 가능(여권 필요). 공항 도착 후 프놈펜 공항에 판매 중인 SIM카드 구입하여 한국 휴대폰(스마트폰 등)에 삽입하면 현지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고 한국 통신사의 로밍 요금보다 훨씬 경제적임. 속도는 3G가 주류를 이루고, 일부 4G(LTE)를 표방하나, 유선 및 데이터 통신 품질이 한국 대비 50% 수준임.

○ 호텔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와이파이(Wi-Fi)는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과부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속도도 괜찮은 수준임.

□ 체류 시 유의사항

○ 최근 캄보디아의 치안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발생

－ 툭툭, 모토 탑승 시 신호대기 중 휴대전화, 핸드백 날치기, 야간 음주 후 귀가 시 폭행 강도 등 다수 사례 존재

○ 야간 외출 및 단체행동, 야간 모토 탑승, 집회·시위·정치적 성격 회의 장소에는 접근 삼가

○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고액권 화폐 과시 삼가

□ 예방 접종

○ 캄보디아에 입국하기 위해 사전에 특별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입국 후 초기에 음식이나 기후가 달라 장티푸스나 이질에 걸리거나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국 전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음.



□ 기타 팁 문화 등

- 식당에서의 팁 문화는 관습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이 드나드는 고급식당에서 서비스 차지가 없는 경우에는 테이블당 \$1 정도면 충분함.
- 한국인들이 주로 귀국시 구매하는 현지 특산품으로는 상황버섯, 노니, 캐슈넛, 후추, 실크제품, 은세공품, 건망고 등이나 품질은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으니 구매시 주의 바람.



II. 캄보디아 개황

1. 일반 사항

국 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위 치	인도차이나 반도 서남부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 북위 10-14°, 동경 103-107°
시 차	-2시간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느림)
면 적	181,035km ² 한반도의 약 80%, 남한의 약 1.8배, 베트남의 절반 동서 580km, 남북 450km
기 후	고온 다습한 열대몬순 기후 20-40℃의 기온 분포로 3-4월이 가장 덥고 1월이 가장 서늘 대체로 5 ~ 10월은 우기, 11 ~ 4월은 건기
수 도	프놈펜(Phnom Penh)
인 구	약 15,957,223 명 자료: (2016년 US CIA World Fact Book) 인구밀도 : 86.7명/km ² 인구증가율 : 1.56% 성비 : 여성 100명당 남성 105명
인구 증가율	1.69%(2012), 1.63%(2013), 1.63%(2014), 1.58%(2015) 자료: (2015년 US CIA World Fact Book)
주요도시	프놈펜(160만 명), 시하누크빌(27만 명), 바탐방(25만 명) (2015) (*자료: Phnompenh.gov.kh, Battambang.gov.kh)
화 폐	Riel, CR 또는 KHR(Cambodian Riel)로 표기 경제 전반에 걸쳐 미 달러화 통용
민족(인종)	크메르(97%), 참족(1%), 베트남(1%), 화교(1%), 등 30여 인종
언 어	크메르(Khmer)어 지식층 및 비즈니스계를 중심으로 불어 및 영어 통용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어 사용 확산 화교 사회를 중심으로 중국어 통용
종 교	불교(국교, 96.9%), 무슬림(1.9%), 기독교(0.4%), 기타(0.8%)
건국(독립)일	1953년 11월 9일(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입헌군주제
국가 원수	국왕: Norodom Sihamoni(국가 원수) 총리: Hun Sen(정부수반/실권자/캄보디아국민당 소속)
입 법 부	양원제(임기 6년의 상원 61석, 임기 5년의 하원 123석)
정 당	여당: CPP(Cambodian People's Party) 및 FUNCINPEC(민족연합전선) 연립정부 야당: CNRP (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 등



2. 경제 지표

G D P	US 128억\$(2011), US 141억\$(2012), US 152억\$(2013), US 168억\$(2014), US 182억\$(2015), US 195억\$(2016) *자료원: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1인당 GDP	US 877\$(2011), US 945\$(2012), US 1,010\$(2013), US 1,095\$(2014), US 1,168\$(2015), US 1,235\$(2016) *자료원: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GDP 성장률	7.1%(2011), 7.3%(2012), 7.4%(2013), 7.1%(2014), 7.0%(2015) 7.0%(2016) *자료원: ADB
물가 상승률	4.9%(2011), 2.5%(2012), 4.7%(2013), 1.0%(2014), 2.8%(2015) 1.5%(2016) *자료원: IMF
환 율	US 1\$ = 4,066리엘(연평균 기준, 2016) *자료원: World Bank
경상수지	-US 13억 300만\$(2011), -US 15억 4700만\$(2012), -US 18억 8000만\$(2013), -US 20억 3200만\$(2014), -US 20억 4200만\$(2015), -US 19억 6900만\$(2016) *자료원: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CIA World Fact Book
외 채 (% of GDP)	29.9%(2011), 31.6%(2012), 32.6%(2013), 33.2%(2014), 32.5%(2015), *자료원: World Bank
외환 보유고	US 40억\$(2011), US 49억\$(2012), US 49억\$(2013), US 61억\$(2014), US 73억\$(2015), US 84억\$(2016) *자료원: World Bank
산업 구조	생산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6년 예측) 1차 산업(농·어업, 산림업 등): 26.7% 2차 산업(제조업, 광업, 건설업): 29.8% 3차 산업(서비스, 수송 등): 43.5% *자료원: CIA World Fact Book
무역 수지	-US 19억\$(2011), -US 24억\$(2012), -US 29억\$(2013), -US 34억\$(2014), -US 21억\$(2015), -US 22억\$(2016) 2011: 수출 US 50억\$, 수입 US 69억\$ 2012: 수출 US 56억\$, 수입 US 80억\$ 2013: 수출 US 65억\$, 수입 US 94억\$ 2014: 수출 US 67억\$, 수입 US 101억\$ 2015: 수출 US 85억\$, 수입 US 106억\$ 2016: 수출 US 100억\$, 수입 US 123억\$
수출입 주종 품목	주요 수출품목: 섬유제품, 쌀, 목재, 천연고무 등 주요 수입품목: 봉제원자재, 원유, 건축자재 등
월 최저임금 수준	80\$(2013), 100\$(2014), 128\$(2015), 140\$(2016), 153\$(2017)



3. 한국-캄보디아 관계

체결 협정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7년 3월 25일 발효)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7년 3월 12일 발효) EDCF 공여 기본협정 (2001년 4월 10일 발효) 항공협정 (2001년 5월 10일 발효)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EDCF 협정 (2001년 11월 8일 발효)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 각서 (2001년 11월 29일 발효) 직업훈련원사업 EDCF 협정 (2002년 6월 5일 발효) 도로개보수 EDCF 협정 (2002년 11월 6일 발효) 수자원개발 EDCF 협정 (2006년 3월 21일 발효) 문화협력협정 (2006년 8월 24일 발효)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2008년 11월 1일 발효) EDCF 기본약정 서명 및 발효 (2008년 12월 30일 발효) 농업기술전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09년 5월 30일 발효) 무상원조 기본협정 서명 및 발효 (2009년 6월 4일 발효)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2009년 11월 29일 발효)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2010년 10월 17일 발효)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설치 협정 (2010년 4월 12일 발효) 한·캄 범죄인인도협정 (2011년 10월 1일) 은행 지급결제 현대화 사업 양해각서 (2014년 12월 13일 체결) 상표 분야 협력 양해각서 (2014년 12월 13일 체결) 청년 예비창업가 활성화 양해각서 (2014년 12월 13일 체결)
교역 규모	2010년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US 3억 3,299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US 4,344만\$ 2011년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US 4억 5,072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US 8,727만\$ 2012년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US 5억 9,300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US 1억 2,600만\$ 2013년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US 6억 1,464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US 1억 3,613만\$ 2014년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US 6억 5,441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US 1억 9,399만\$ 2015년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US 6억 5,276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US 2억 1,652만\$ 2016년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US 5억 7,296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US 2억 3,946만\$
수출입 주종 품목	- 대 캄보디아 수출 : 편직물, 화물자동차, 기타 섬유제품, 음료 등 - 대 캄보디아 수입 : 편직제 의류, 직물제 의류, 알루미늄, 천연고무, 유선통신기 부품 등
재 캄보디아 교민	약 10,000명 프놈펜(약 7,500명), 시엠립(약 2,000명), 기타지역(약 500명)

Ⅲ. 캄보디아 경제 현황

1. 경제 동향

□ 주요 부문별 경제현황

○ 국내총생산(GDP)

- 2005~2007년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1%의 두 자리 성장을 기록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8년 6.8% 성장하였으며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0.1%의 GDP 성장률을 기록
- 그러나 2010년부터 봉제업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11년 이후 7% 넘는 고도 성장 기록, 5년이상 유지 중

국내총생산(GDP) 변화 추이

연 도	단 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US\$십억	14.0	15.4	16.8	18.0	20.0	22.0	24.0
1인당 GDP	US\$	945	1,010	1,095	1,145	1,230	1,309	1,401
실질성장률	%	7.3	7.4	7.1	7.0	6.9	7.0	7.2

주) 2017년은 추정치, 2018년은 전망치

※ 자료원 : IMF, World Bank, EIU(2017)

○ 빈곤 문제

- 2004년 34.7%였던 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 : 1일 1달러로 사는 인구비율, UN)가 2007년에는 30.1%로 매년 빈곤지수가 1%씩 감소
- 캄보디아 정부는 매년 1%씩 빈곤지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며, 2010년 25%, 2015년 19.5%까지 감소가 목표
 - ※ 프놈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평균보다 낮지만 내륙산악지역은 빈곤지수가 50%에 육박하는 수준



○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과 함께 2007년 10.8%, 2008년 7.5% 등 가파른 물가 상승이 경제 위기 이후인 2009년 -0.7%, 2010년 4.0%을 기록하였고, 2011년 4.9%, 2012년 2.5%, 2013년 4.7%, 2014년 1.0%, 2015년 2.8%, 2016년에는 3.9%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음. 2017년, 2018년에도 약 3% 안팎의 상승세 유지 전망

○ 재정

- 캄보디아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매년 정부의 목표치인 GDP의 6%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수준
-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수입은 동남아국가의 평균 2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존에는 관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점차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환율

- 캄보디아 리엘 화는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 때 약 40% 평가절하 되어 1달러 당 3,900리엘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그 후 4,000리엘 수준 유지 중
- 2017년 기준 1달러당 4,000~4,100리엘 수준으로 기조 유지

2. 경제 관계

□ 경제 관계

최근 5년간 한-캄보디아 교역 현황

(단위 : US\$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 출	593,295	614,644	654,419	652,765	572,963
수 입	126,359	136,313	193,994	216,527	239,461
무역수지	466,936	478,331	460,425	436,238	333,502
교역규모	719,654	750,957	848,413	869,292	812,424

※ 자료원 : 무역협회 통계(2015)



- 한국의 대 캄보디아 수출은 지난 2001년 최초로 1억 달러 돌파 이후, 매년 평균 20%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 세계적 외환위기로 인하여 증가세가 감소 후 2010년부터 다시 꾸준히 증가 추세
- 2015년 대 캄보디아 수출은 2009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소폭 감소했으며, 수입은 수출에 비해 총 금액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200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함. 2015년 대 캄보디아 무역수지는 약 4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5%의 감소율을 보이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성장세를 보인다, 2014년부터 소폭 감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주요 수출상품은 식물류, 중고차, 휴대폰,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 의약품, 음료이며, 주요 수입상품은 의류, 천연고무, 상황버섯, 수산물 등임
- 한-아세안 FTA 활용범위 확대 및 농가공 분야에 대한 우리 투자진출 확대 시 양국 간 교역량의 증가는 물론 무역 불균형이 일부 시정될 것으로 예상

한국의 주요 수출품 (단위 : US\$천, %, MTI 6단위)

순위	품 목	2016년		2017년(3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편직물	126,971	-12.3	27,173	-9.1
2	알루미늄판	64,702	17.0	23,416	66.0
3	화물자동차	56,848	-28.3	17,770	6.3
4	물	54,443	21.8	15,320	-11.9
5	기타의 섬유제품	43,479	-22.7	10,473	-6.0
6	의약품	10,384	3.1	2,757	3.3
7	기타의식물	9,290	38.0	2,744	18.7
8	코드 분할식 전화기	13,172	-33.0	2,625	-20.4
9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7,504	68.2	2,500	80.3
10	저압케이블	6,571	20.7	2,228	44.9
11	기타주철	5,799	2,555.8	2,053	149.2
12	의류부속품	7,450	-36.1	1,968	-16.0
13	폴리에스터직물	6,443	27.4	1,600	1.8
14	특장차	7,308	-13.0	1,593	-9.6
15	기타플라스틱제품	5,250	32.0	1,587	62.2
16	자동차부품	5,251	-18.9	1,569	28.0
총 계		572,963	-12.2	149,861	0.5

※ 자료원 : 무역협회 통계(2017.3)



- 2016년 16대 품목 수출액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였으며, 편직물, 화물자동차, 기호음료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품목에는 큰 변화 없음

3. 투자 관계

□ 캄보디아 투자환경

-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1인당 GDP 약 1,200달러 수준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투자유치에 주력
- 외국인투자 장려와 투자 안전보장을 위해 뉴욕협약(1958년)을 비준하고 국제적인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 제정, MIGA 규정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시행법률 등을 채택하였으며, 1989년 시장경제 도입, 1994년의 외국인투자법 제정·시행 및 투자개발위원회(CDC)를 통한 투자절차 간소화, 2003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제도적 노력에 힘입어 투자여건 점차 개선
-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 제공(단, 헌법에 명시된 토지 소유는 예외)
-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사유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유화정책을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투자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통제할 수 없도록 입법조치
- 캄보디아 정부는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는 투자에 대해서만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가 받은 대로 투자를 이행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령으로 규정

□ 한국기업 캄보디아 투자 현황(한국기준)

- 한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는 2009년 부동산 및 건설 호황으로 인한 투자와 봉제 제조업 투자가 두드러짐
 - 2009년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발생으로 캄보디아 투자가 급증하였으나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받으며 성공하지 못함
 - 이후 캄보디아로의 한국 투자는 다소 주춤하며 생산기지로서 봉제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짐

(단위 : 천, US\$천)

업종대분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부동산업 및 임대업	93	954,604	383,550
금융 및 보험업	16	485,010	332,801
제조업	124	381,877	282,799
건설업	50	488,108	269,530
농업, 임업 및 어업	32	186,171	87,420
도매 및 소매업	111	114,960	67,297
숙박 및 음식점업	26	38,880	25,840
광업	8	1,096,491	25,5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	36,467	19,746
합계	547	3,782,68	1,494,497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2017)

□ 대 캄보디아 투자 동향(캄보디아 기준)

- 봉제 노동자 임금상승의 여파로 봉제 제조업 중심 투자는 점차 금융업 위주로 개편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공무원의 부패정도가 높고 뇌물 및 투명성이 부족한 일처리가 공무원 조직 깊숙리 내재되어 있어, 실제 투자 진행 시 투자비용 증가 및 적법하지 못한 진행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대
- 최근 캄보디아 투자는 중국, 일본,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관광, 호텔, 은행, 섬유봉제, 농산업, 시멘트제조 등이 주류를 이룸.



(단위 : US\$백만,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체	2,667	10,889	5,859	2,697	7,010	2,275	4,496	1,604	3,920	3,249
캄보디아	1,323	3,932	3,753	396	1,930	907	3,267	582	3,135	943
FDI	1,344	6,957	2,106	2,301	5,080	1,368	1,229	1,022	785	2,305
한 국	148	1,237	120	1,027	144	272	82	65	8	20
FDI대비 비중	11.0	17.8	5.7	44.6	2.8	19.9	6.7	6.4	1.1	0.8

※ 자료원 : CDC (2016) / 주 : QIP 투자금액



제조업종별 해외투자현황(한국기준)

(단위 : 건, US\$천)

구 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식료품	44	15	45,070	26,729
음 료	24	2	77,265	76,865
섬유제품 (의복 제외)	52	15	20,045	13,5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32	58	147,756	106,278
가죽, 가방 및 신발	33	9	32,911	20,631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 제외)	12	5	8,949	4,89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	1	417	4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	1	350	30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23	12	20,117	8,47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48	4	10,264	8,14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7	8	7,707	7,076
비금속 광물제품	28	9	9,282	6,060
1차 금속 제조업	12	3	1,855	1,327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4	2	2,720	1,1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3	9	6,899	5,264
전기 장비 제조업	51	11	38,854	23,28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7	8	10,055	6,58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4	19,573	14,253
가구 제조업	8	2	5,821	4,128
기타 제품 제조업	31	11	20,294	12,297
합 계	582	189	486,204	347,626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1980~2016년)



4. 진출 유망 분야

□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

- 캄보디아의 경우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에 매우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일차적으로 정부에서도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점 투자 유치 부문으로 선정하여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근로자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아, 복잡한 기능이나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노동자들의 경우 단순한 작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 중국의 규제 강화, 베트남에서의 급격한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캄보디아의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은 캄보디아 투자 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일부 업체의 경우 높은 수준의 조립생산 투자를 고려하였으나, 전문기능인력이나 기술 인력의 경우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최근의 잦은 노동분쟁의 결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을 잃어갈 것으로 전망됨. 임금은 여전히 인근국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노동집약산업의 대체지로서 역할 할 가능성 있음.
- 틈새시장을 겨냥한 자본집약적 산업의 투자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물리적인 인프라 수준이나 행정체계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산업을 위한 투자지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들어 중국의 제조원가 상승 등 탈 중국화 현상으로 봉제업 및 신발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분야에 대한 캄보디아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제3국 수출 가공 산업

- 수출산업의 원부자재 수입 시 세금을 면제해주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어 선진국에 대한 수출가공기지로 활용 가능.
- 단순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이면서 특혜관세제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
- EU의 경우 아세안 원산지 원부자재를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관세율을 일정 비율 인하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캄보디아의 경우 아세안 회원국으로 2010년까지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0~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며 2015년에는 대부분 0%가 적용.
-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캄보디아 시장만 고려하지 않고, 지역 시장규모 및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국가 등을 겨냥할 필요가 있음.

□ 풍부한 원료 가공 분야

- 캄보디아에서 가장 풍부한 원료는 농수산물로 캄보디아 정부가 농업에 대한 중점 육성 정책을 취하고 있고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므로 관개시설의 확대와 함께 농업 생산물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메콩강과 톤레삽 호수, 태국만이 있고 산림이 60%에 이르고 있어 수산물 가공이나 임산물 가공도 유망함.
- 농산물 가공을 통해 현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며, 가공에 따른 특혜관세를 통해 국제가격경쟁력을 확보 할 수도 있어 농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종도 유망함.



□ 유망한 내수 시장 개발

- 캄보디아는 1인당 GDP 1,200달러의 동남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인구도 약 1,500만 명에 불과하고, 도시거주인구가 20.5%(2014)에 불과하여 대부분 농촌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어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은 매우 낮은 편임.
- 그러나 현재의 저소득, 미약한 시장규모는 미래의 고소득과 큰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어 현재의 시장과 구매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내수와 시장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망한 내수시장은 먼저 개발이 낙후된 부문부터 검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기업의 경우 현지 전력 보급률이 낮아 향후 전선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출함. 그러나 밀수품과의 가격 경쟁, 캄보디아 정부 전력인프라 투자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5. 투자 유의사항

□ 캄보디아 노동분쟁 현황

- 우리 기업의 투자와 캄보디아 내 노동분쟁 피해
 - 2013년 말 ~ 2014년 초 시위 피해 관련(국가 총 사망자 5명 발생)
 - 캄보디아 수출액 5,490백만 달러 중 약 70%이상이 봉제의류 품목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봉제업은 캄보디아 제조업의 핵심임
 - 노동 시위로 인하여 전체 3,0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보았으며, 바이어들의 오더가 감소함에 따라 그 이상의 피해 발생
 - 복수 노조가 가능하고 노조 형성이 자유로운 편인데다 근로자들의 지식 수준이 높지 않아 노무 관리가 어려운 편임. 특히 대형 노조의 경우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 캄보디아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된 노동쟁의 건수는 2010년 145건에서 2014년 361건으로 급증.



(단위 : 건)

연 도	노동자 파업건수	노동쟁의 건수
2010	45	145
2011	34	191
2012	121	255
2013	147	285
2014	108	361
2015	118	—

※ 자료원 : GMAC, Arbitration Council

부정부패와의 전쟁

-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TI)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10여 개의 조사기관이 17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부패인식지수(CPI)조사에서 캄보디아는 21점으로 최하위권인 156위를 차지함.
- 대부분의 인허가 처리에는 법정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만 법정수수료만 지불해서는 아무리 서류를 잘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우며, 서류에 결재를 하는 사람 모두에게 일종의 비공식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부정부패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판단은 매우 미약하며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반 부정부패법 제정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해오다 2010년 부정부패방지법이 탄생하고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아직 효과는 미약함.
-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CDC의 경우도 비공식 수수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님. 투자인센티브 CDC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와 같이 특혜를 부여하는 인허가절차는 거의 모두 비공식 수수료가 필요함.
- 투자인센티브 신청 공식 수수료는 1,750달러 정도이지만 실제로 비공식 수수료는 이보다 훨씬 많으며,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봉제업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7,00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경제구역(SEZ)을 경유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8,000달러 정도가 소요되고 그 외에는 통상적으로 2만 달러까지 요구되는 실정임.
- 최근 캄보디아 국제투자세미나에서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장애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투자청 고위직과 사적인 이야기로 “대부분의 캄보디



아인들은 생사의 갈림길까지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우선은 자기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그 배경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음

□ 정보 수집 노력

- 캄보디아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움. 정부는 정확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발표에 있어 여력이 부족하여, 속도가 늦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임.
-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필요한 정보는 직접 업체나 현장을 방문해서 수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전문조사기관이나 연구기관도 거의 없는 실정임.
- 캄보디아의 공식 통계자료는 자체적인 조사보다는 Worldbank, ADB등 양/다 자원조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조금씩 통계자료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음.
- 마케팅조사 전문업체가 있지만 조사수수료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현장에는 무수하게 다양한 소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기관이나 조사자에 따라 다른 정보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여러 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프라 미비

-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도로, 철도, 항공 등 운송수단이 취약하고 유선 통신망 구축이 미흡하여 대부분은 무선통신망에 의존하지만 무선통신망도 잘 갖춰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통신망의 경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유선 통신망 구축이 미흡하여 대부분은 무선통신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음.
- 전력 또한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의 하나이며, 인근 국가(태국, 라오스, 베트남)로부터의 수입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수력, 화력발전소의 막대한 투자로 캄보디아 전력현황이 좋아지고 있으며, 자가 발전량도 증가하고 있음. 다만 아직까지도 전력현황은 불안한 상태이고, 발전 및 공급량 대비 누전량이 많은 상태임.
- 소프트웨어 인프라도 취약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수기로 서류가 작성되는 경우도 많아서 넉넉히 시간을 두어야 시한을 맞출 수 있음.



□ 전문 인력의 확보

-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외국에서 유학한 인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기능이나 기술수준이 높은 다양한 인력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워, 소수 고급 인력은 급여수준에 따라 이직이 잦음.
- 필요한 전문 인력의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국이나, 베트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임.
- 현지에서 자체적인 인력을 양성하거나, 파견 교육을 통한 전문 교육 이후 현지에서 고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개인의 역할과 신뢰성

- 공개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특성상 소위 고위층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아무리 신뢰성이 있는 중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함.
-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권력자와 인척관계이거나 권력자와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으로는 업무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적인 착취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함.
- 중개인을 통하여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직접 해당 부처를 방문하여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인허가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개인을 통하여 고위층을 내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무적인 절차는 모두 거쳐야 하므로 해당 부처와 직접 접촉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6. 정치 현황

□ 최근 국내정세

- 2013년 제5차 총선 및 제5기 정부(2013.9~) 출범
 - 2013년 7월 5차 총선 결과 캄보디아 국민당(CPP: Cambodia People's Party) 68석, 제1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55석을 차지하여 총 123석으로 국회 구성되었으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2013년 9월 23일 캄보디아국민당은 야당이 보이콧하자 국회를 단독 개원하고 새 정부를 출범
 - * 약 1년간의 여당 단독 국회 운영 후, 여야 간 영수회담(2014년 7월 22일)에서 캄보디아구국당의 등원에 합의, 2014년 8월 5일에 정상화
- 캄보디아 국민당 주도체제 강화
 - 총선 승리를 통해 훈센총리는 권력 기반 강화, 인플레이션 해결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 노력을 하고 있음
- 2013년 7월에 있었던 선거 이후로 야당과의 갈등이 야기되어 정국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최근에는 시위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봉제공장 시설물 파괴 등의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음
- 2013년 12월부터 2014년 03월 현재까지 봉제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상시위와 더불어 시위에서 억류된 노동자들에 대한 석방요구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임
- 2014년 5월 18일 제2회 캄보디아 시군구 및 도의회 선거가 실시됨
 - 전체 선거결과 캄보디아국민당 2,540석(76.4%), 캄보디아 구국당 765석(23.6%)을 차지함
 - 도의회 선거 결과 캄보디아국민당이 306석, 캄보디아 구국당이 86석 및 훈싹당이 1석을 차지함
 - 시·구·군 의회 선거 결과 캄보디아국민당이 2,234석, 캄보디아 구국당이 679석, 훈싹당이 17석, 민주연맹당이 1석을 차지함
- 2017년 6월 4일에 지방선거, 2018년 7월에 차기 국회의원 선거 예정



7. 한국과의 관계

□ 체결 협정 현황

협정명	서명일	발효일
무역 및 지불협정	1964년 10월 16일	1964년 12월 8일
문화협정	1973년 1월 29일	1973년 1월 29일
대표부 설치 양해각서	1996년 5월 15일	1996년 5월 15일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7년 2월 10일	1997년 3월 12일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7년 2월 10일	1997년 3월 25일
무상기자재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	1997년 5월 15일	1997년 5월 15일
EDCF 기본협정	2001년 4월 10일	2001년 4월 10일
항공협정	2001년 4월 10일	2001년 5월 10일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EDCF 협정	2001년 11월 8일	2001년 11월 8일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2001년 11월 29일	2001년 11월 29일
직업훈련원사업 EDCF 협정	2002년 6월 5일	2002년 6월 5일
도로개보수 EDCF 협정	2002년 11월 6일	2002년 11월 6일
수자원개발 EDCF 협정	2006년 3월 21일	2006년 3월 21일
문화협정	2006년 7월 31일	2006년 8월 24일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	2008년 11월 1일
EDCF 기본약정	2008년 12월 30일	2008년 12월 30일
농업기술전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09년 5월 30일	2009년 5월 30일
무상원조 기본협정	2009년 6월 4일	2009년 6월 4일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	2009년 11월 29일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설치 협정	2010년 4월 12일	2010년 4월 12일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	2010년 10월 17일
한·캄 범죄인인도협정	—	2011년 10월 1일
은행 지급결제 현대화 사업 양해각서	—	2014년 12월 13일
상표 분야 협력 양해각서	—	2014년 12월 13일
청년 예비창업가 활성화 양해각서	—	2014년 12월 13일

- 1997년 10월 30일 한·캄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공식 외교관계를 재개하였으며,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KOTRA 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 설치



□ 정치·외교관계

- 캄보디아는 한국의 주요 유·무상 원조 대상 국가로서 캄보디아 일반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양호한 편임.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은 급증하다가 2009년 이후 다소 주춤하였으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민간 차원의 관계도 더욱 확고히 다져지고 있음.
- 2006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보다 많은 유·무상 원조를 약속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시발점이 됨
-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때 훈센 총리가 방한한 바 있으며,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으로 양국 간 우호증진 교류가 활발해짐
- 2009년 6월, 10월에는 각각 양국 정상인 상호 방문을 통해 경제·통상, 자원·에너지, 문화·영사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공고화함
- 2014년 12월 훈센 총리의 방한으로 이루어진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현재의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해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양국 관계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내용으로는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 협의, 메콩강 개발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은행 지급결제 MOU, 상표 분야 MOU, 청년 예비창업가 활성화 MOU, 조속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상호 무관부 설치가 주를 이룸



IV. 캄보디아 시장 특성과 바이어 특징

□ 캄보디아 인구

- 캄보디아의 인구는 2013년도에 약 1,5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국가(평균 나이 27세)로 매우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나라임.
- 캄보디아 인구는 2020년까지 약 1,8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시장에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가정. 이는 곧 경제발전의 한 견인축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시장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캄보디아는 작은 시장이지만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빠르고 고객의 호기심이 높은 반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 상품 수명 주기가 짧은 편. 최근 이러한 특성과 맞물려 대형쇼핑몰, 온라인 유통이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캄보디아 문화

- 캄보디아는 고대부터 힌두교와 불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역사, 설화, 건축물에 그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 향후 화교들이 자리를 잡아 상권을 장악하면서 중국 문화도 일반화 되어 있으며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캄보디아인은 대부분 중국계인 경우가 많음.

□ 캄보디아 인프라

- 킬링필드 이후 그나마 존재했던 인프라마저 파괴된 캄보디아는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등 기초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 하지만 현재 양·다자간 원조 기구의 원조와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인프라 관련 투자로 인하여 개선되고 있음. 또한 정부기관의 행정 시스템, 법 제도 개선, 신 재생 에너지 도입 등의 다양한 정책을 도입 및 시도함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 또한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

□ 캄보디아 제조업



- 2010년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중국 내의 봉제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전하였고, 특히 저렴한 인건비의 캄보디아로 이전을 많이 하였음. 하지만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봉제업의 신규 투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기 진출한 봉제기업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캄보디아는 인근국가(태국, 베트남, 중국)에 비해 제조 산업이 매우 취약하여, 일반 소비재, 생활필수품, 식품 등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마트에서 Made in Cambodia 공산품은 전무하며, 금속가공 등 중화학 처리기술이 전무할뿐더러, 플라스틱 사출기술 같은 기초적인 산업기술마저 도입이 안된 상태로, 기초적인 일용품마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
- 캄보디아의 많은 비즈니스인들은 캄보디아의 작은 시장 규모 등의 이유로 제조업 개발에 투자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인근국가와의 무역(수입)을 통한 부의 축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여기에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부동산 투자 열기에 힘입어 프놈펜 지역의 부동산 가치 급상승하는 현상으로 갈수록 제조업 투자에는 관심을 갖기에 힘든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경향으로 자칫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인한 리스크 현실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對 한국 이미지

- 일반적으로 ‘한국 = 선진국, 한국 상품 = 높은 가격, 좋은 품질’의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캄보디아 시장은 품질보다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미지가 진출에 방해가 되기도 함. 따라서 제품에 따라 고급화 전략을 준비하는 마케팅도 필요함.
- 한국은 ‘캄보디아에 원조해 주는 잘 사는 나라’, 자국 국민 5만명이 노동자로 파견되어 ‘현지 월급여의 6~7배를 벌 수 있는 나라’ 등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과거 캄보디아 왕의 북한과의 친분과는 달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캄보디아는 한류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음. 특정 유명 드라마가 방영이 되는 시즌에는 한류의 영향을 받으나, 드라마가 종영이 되면 다시 분위기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단순히 한류마케팅으로만 시장에 접근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음.



□ 바이어 특징

- 한국산을 찾는 바이어들은 주로 중고품 및 재고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음. 신제품(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산)의 금액과 한국 중고제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여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한국과의 직접 거래 경험이 적은 경우, 혹은 주문 물량이 적을 경우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3국을 통한 수입을 하는 바이어도 있음.
- 첫 가격 리스트 송부 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나 무리한 결제 조건을 요구하여 어려운 거래라는 인식을 주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음.
- 캄보디아 바이어들은 즉흥적으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교신 초기단계부터 구매를 할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음. 특이사항이 없다면 바로 거래를 위한 교신이 진행 되지만 중간에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변심하는 경우는 타인에게 미안한 말을 못하는 문화적 특성상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 미팅 시 유의사항

- 바이어 면담 시 Mr. 나 Ms. 혹은 Dr. 등의 경칭을 붙이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주변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면 꼭 강조하여 캄보디아에서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음을 어필하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함.
- 사후 이메일 교신 시, 통신사정이 좋지 않아 메일을 보내고 난 후 꼭 전화로 메일 열람 여부를 확인해야 신속한 거래가 진행 될 수 있음.

V. 프놈펜 관광 안내

□ 왕궁(Royal Palace)

왕궁은 현재 재위중인 시하모니 국왕이 거주 중이며, 캄보디아 건축양식이 잘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임. 1866년 세워진 왕궁의 본전 건물은 힌두교와 불교의 설화를 담고 있으며, 바로 앞에는 1861년 나폴레옹 3세가 기증한 프랑스식 건물과 왕궁 사무소가 있음. 시소왓 왕(1904~1927년 재위)에 의하여 건립된 본전은 앙코르 톰의 바이온 사원을 모방하여 만든 59m의 탑이 장식되어 있으며, 대관식이나 외교사절 접견 등의 의례에 사용됨



□ 실버 파고다(Silver Pagoda)

왕궁 안에 자리한 실버 파고다 사원은 우리식 왕사로서 매우 아름다운 건축물임. 실버 파고다의 이름은 사원 중앙 바닥이 은제 타일(하나당 1.1kg)로 깔려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며, 총 무게는 5,809kg임. 파고다의 내부에는 금으로 만든 대좌위에 에메랄드 부처(Baccarat Crystal)와 9,584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는 90kg의 금부처가 있으며, 제일 큰 다이아몬드는 25캐럿이라고 함. 이곳의 불교사원에는 많은 탑이 있는데, 실버 파고다 마당의 탑은 현 시하모니 국왕의 조상이나 시하누크 전 국왕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임





□ 독립 기념탑

수도 중심부인 시하누크 거리와 노르돔 거리가 교차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앙코르 양식의 건축물임. 1953년 11월 9일 프랑스로부터 완전 독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이 탑은 1958년에 완공되었으며, 캄보디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위한 위령탑으로도 사용됨. 지방의 각 도청소재지는 이와 비슷한 독립기념탑을 도시 중심에 세움



□ 왓 프놈(Wat Phnom)

왓 프놈은 ‘산위의 사원’이란 뜻(Wat은 사원이고, Phnom은 산)으로 Penh이라는 보살이 메콩강에 떠내려가는 여의주를 발견하여, 이 여의주를 모시기 위해 왓 프놈 사원을 세웠다는 전설이 내려옴. 여기에서 프놈펜(Phnom Penh)이라는 지명도 유래됨



□ 톨슬랭 박물관(Tuol Sleng)

톨슬랭 인종 학살 박물관은 크메르루주 정권의 고문장소로서 고등학교를 개조하여 만들었으며, 당시에는 S-21감옥소로 불림. 이곳을 거쳐 간 1만 4천여 명 중 생존자가 단지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른바 ‘살인공장’으로 알려져 있음. S-21 감옥소는 1979년 크메르루주가 반 크메르루주 저항군-베트남군간 연합 세력에 의해 태국 국경지역으로 쫓겨난 이듬해인 1980년부터 톨슬랭 인종 학살 박물관이란 이름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됨.

□ 킬링필드(Killing Fields)

킬링필드는 톨슬랭에서 고문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살상된 장소로서 통상 톨슬랭에서 고문과정이 끝나면 수용자들은 저녁에 눈가리개를 하고 손발이 묶인 채, 트럭으로 이곳에 실려와 무참히 살해됨. 킬링필드에서 희생된 사람은 약 16,000명 정도이고, 현재 두개골 8,000여개를 수습해 위령탑을 세우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함.



※ 주요 연락처

□ 긴급연락처

- 경찰 : 117/118 프놈펜 : 097-77-80002
 - 외국인을 위한 24시간 운영 현지 경찰 핫라인 031-201-2345
 - Whats App 어플 계정 : (855) (0)31-201-2345(전화번호로 검색)
 - E-mail : fad-info@police.gov.kh
- 소방서 : 118 또는 012-786-693
- 의료기관
 - 헤브론 병원(한국어 사용 가능) : 012-436-124, 주소 : Phum Prey Salar Sangkat Kakab, Khan Dangkor,(프놈펜 공항 맞은편)
 - 제일병원(First Center Clinic, 한국어 사용 가능) : 092-911-911, 주소 : No.364-366, Preah Monivong, Phnom Penh
 - Raffles SOS hospital : 012-816-911, #161, Street 51(Pasteur) Sangkat Boeung Raing Khan Daun Penh 12211
- 한국대사관 : 023-211-900/3, cambodia@mofa.go.kr
 - 근무시간(08:30~17:00)외 긴급시 비상연락처 : 당직휴대폰 092-555-235 (당직자가 자택에서 비상전화 대기)
- 재캄보디아 한인회
 - 023-964-160(주중 08:30~17:00), 안전담당 : 012-836-152, 088-6011-810
-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전화번호 : 023-964-150/1
- KOTRA 프놈펜 무역관
 - 전화번호 : 023-999-099
 - 이메일 : kotraphn@kotra.or.kr



해외에서의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KOTRA입니다.

2016.9.28일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도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KOTRA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KOTRA 청탁방지담당관 올림



www.kotra.or.kr